

보도시점

2026.9.21.(월) 10:00

배포

2026.9.21.(월) 09:00

「미리 만나는 2027 금융위 청년 사업」 행사 개최

- ✓ 이억원 금융위원장, 한양대에서 청년들과 마주앉아 2027년 금융위 청년 사업을 소개하고, 현장 청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
- ✓ 청년의 성장단계에 따라 자산형성, 취·창업, 주거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금융 사다리를 구축하여, 촘촘하게 지원
- ✓ 청년 대표 단체와 사업 대상 청년 등이 참여하는 ‘가칭청년 금융정책 자문단’을 구성하여 정책 전 과정에서 청년의 의견을 수렴

1. 행사 개요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2026.9.21.(월) 한양대학교 서울캠퍼스 한양종합기술연구원에서 「미리 만나는 2027 금융위 청년 사업」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청년주간(9.19~25일)을 맞이하여 2027년의 금융위의 신규·개편 청년 사업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청년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되었다. 행사에는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 단체(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사업에 관심이 있는 일반 청년들과 서민금융진흥원, 주택금융공사 등 사업 운영 기관 등이 참석했다.

< 「미리 만나는 2027 금융위 청년 사업」 행사 개요 >

- 일시·장소 : '26.9.21.(월) 10:00, 한양대학교 서울캠퍼스 한양종합기술연구원
- 참석
 - (금융위) 이억원 금융위원장, 금융소비자국장 등
 - (청년 등)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센터장, 청년 등
 - (사업 운영기관) 서민금융진흥원, 주택금융공사

II. 금융위원장 모두발언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청년들이 일자리, 자산형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평가하며, 2026년 약 8,700억원인 청년 지원 예산을 2027년에는 약 2.1조원으로 2배 이상 늘려, 자산형성·일자리·주거 3개 주요 분야에서 6개의 신규·개편 사업을 중심으로 청년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억원 위원장은 ①자산형성 관련, 우리아이자립펀드를 통해 청년들이 종잣돈을 가지고 청년기를 시작할 수 있게 지원하는 한편, 청년미래적금은 가입대상을 모든 청년으로 확대하고, 혜택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②일자리 분야에서는 청년기회자금을 통한 취업 준비 자금 지원, 금융권 취업 준비 청년에 대한 금융특화 교육 제공, 핀테크 기업에 대한 사업화 지원 등을 통해 청년들에게 취업과 창업의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는 것에 집중하는 한편, ③주거 분야에서는 기존 보금자리론 외에도 청년미래보금자리론과 청년 전월세결합보증을 신설하여 청년들의 주거사다리를 촘촘하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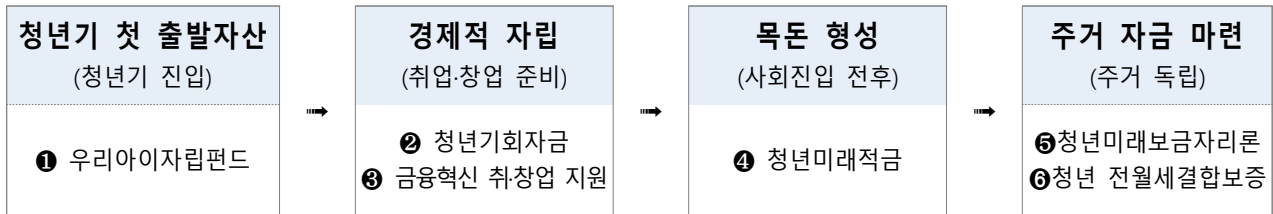
한편, 청년을 대표하는 단체와 청년, 사업운영기관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가칭청년 금융정책 자문단’을 구성하여, 정책의 기획-집행-평가의 전 과정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청년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금융위 청년사업을 통해 청년이 체감하는 변화들이 청년의 가족, 나아가 청년들의 삶의 터전인 지역사회에까지 긍정적 영향을 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III. 행사 주요 내용

< 2027년 금융위 신규·개편 청년 사업 >

이날 행사에서는 먼저 2027년에 신설·개편이 추진되는 금융위 청년 사업 6개의 주요 내용이 청년들에게 소개되었다. 금융위는 2027년 청년 지원사업을 대폭 확충하여 자산형성, 취·창업, 주거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튼튼한 금융 사다리 구축할 계획이다.



청년기 진입 시기에는 ❶우리아이자립펀드를 통해 청년의 사회 첫 출발자산을 정부와 부모가 함께 모은다. 우리아이자립펀드는 부모와 정부가 함께 아이 명의의 펀드에 적립하고 장기로 투자·운용하는 상품으로 아동의 출생부터 만 18세까지 정부가 정액(年 120만원) 또는 매칭(최대 年 100만원)으로 지원금을 적립해주는 구조이다. 연 수익률 6%를 가정하고 연 200만원을 19년간 투자할 경우 약 7,000만원의 목돈을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취업과 창업 준비 시기에는 ❷청년기회자금을 통해 취업·창업을 준비하기 위한 자금을 지원하고, 핀테크 분야의 창업과 금융권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위해 ❸금융혁신 취·창업 지원사업을 통해 사업화 및 전문인력 양성도 지원한다. 청년기회자금은 미취업 청년들에게 1회 최대 500만원, 연간 750만원 한도(생애 최대 2,000만원 한도)로 저리 자금을 대출해주는 사업이다. 취·창업 준비기간 동안은 거치기간 최대 8년까지 이자 납입이 면제*되어, 청년들의 상환부담이 대폭 감경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혁신 취·창업 지원사업은 우수 청년 핀테크 기업에는 데이터 실증, 금융사 매칭 등 사업화 기회를 제공하고, 청년들에게는 AI 특화 교육과정 및 인턴십, 자격증 취득 등 현장경험까지 지원하여 혁신 청년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 정부가 금융기관에 이자를 대납

사회진입 전후에 청년들의 초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❹청년미래적금을 확대·개편한다. 청년들의 높은 수요를 반영하여 청년미래적금 가입 대상을 모든 청년으로 확대하고, 우대형의 정부 기여금을 기존 12%에서 15%로 상향한다. 특히, 지방 중소기업 재직자의 경우에는 기여금을 25%로 대폭 상향한다. 일반형에 가입한 청년은 최대 약 2,100만원 이상의 추가적인 목돈을, 지방 중소기업 청년은 최대 2,500만원 이상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더해, 청년미래적금 가입 대상 확대에 맞춰 모든 가입자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국회 등과 협의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주거 독립을 준비하는 시기에는 주택유형(아파트, 아파트外), 주거형태(자가·전세·월세)에 대한 선택 폭이 확대되도록 주거사다리를 촘촘하게 지원한다. 자가 매입·거주의 경우, 아파트 구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일반보증자리론을 기존과 같이 이용할 수 있으며, 오피스텔 등 아파트 외 주택 구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⑥청년미래보증자리론을 통해 더 용이하게 자가 마련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전월세를 이용하는 청년에 대해서는 기존의 무주택자 대상 전세보증에 더해 ⑥청년 전월세결합보증**을 통해 저리로 전월세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 ①금리 우대(기본우대+지방저소득신생아 추가우대), ②LTV 우대(최대 80%), ③향후 생애최초 LTV 우대 유지

** ①임차보증금 90% 및 2억원 한도(신혼유자녀 3억원) ②100% 보증, ③지방저소득 청년 이차보전 지원

〈 청년 정책 토크 주요 내용 〉

'27년 금융위 청년 사업에 대한 발표 이후에는 행사에 참여한 청년들과 함께 사업에 대한 질의응답과 건의 등 정책 토크가 진행되었다.

직장인인 청년은 청년들이 전반적으로 생활비와 주거비 부담 등으로 목돈을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말하며, 청년에 대한 보편적인 자산형성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자녀를 계획 중인 신혼부부 청년은 출산을 하게 되면 부모는 육아휴직으로 소득이 줄어드는 반면, 양육비 등으로 지출 부담이 커질 텐데, 이러한 어려움 속에 아이의 미래를 준비할 여력이 부족해질까 염려된다며, 향후 아이가 성인기에 자립할 수 있도록 종잣돈 마련을 지원하는 정책이 꼭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핀테크 기업을 창업한 청년은 청년 핀테크 기업은 실제 데이터로 기술을 검증할 기회가 없어 사업화가 어렵다는 점과 금융특화 AI 인력에 대한 수요는 있으나 인력 채용이 쉽지 않다는 점을 언급하며, 정부의 지원을 요청하였다.

취업 준비 청년은 취업 준비 과정에서 생활비에 대한 걱정으로,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며, 청년기회자금과 같이 청년들이 취업 준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 외에도, 청년들의 재무관리 역량 제고가 필요하다는 의견, 다양한 청년 지원 사업들에 대한 홍보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제시되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오늘 행사가 “청년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과 필요한 금융 정책의 방향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볼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고 언급하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고 밝히면서 행사를 마무리하였다.

한편,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행사가 종료된 이후, 한양대학교 가치투자학회(스탁워즈(stockwars))를 방문하여, 학생들을 격려하고 금융생활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IV. 향후계획

금융위는 오늘 행사에서 수렴된 청년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의 세부 운영방안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며, 이번 청년 소통 행사를 계기로 정책 수립의 전 과정에서 청년들의 의견을 더욱 세심히 수렴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여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청년 정책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또한, 2027년 금융위 청년 사업 예산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 별첨 : 금융위원장 모두발언

담당부서 <총괄>	금융위원회 청년정책과	책임자	과 장	양재훈	(02-2100-1685)
		담당자	사무관	이승호	(02-2100-1689)
		담당자	사무관	김희진	(02-2100-1689)
		담당자	사무관	노지열	(02-2100-1689)
담당부서 <협조>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책임자	과 장	김성진	(02-2100-2660)
		담당자	사무관	김은향	(02-2100-2664)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책임자	과 장	권유이	(02-2100-2830)
		담당자	서기관	윤덕기	(02-2100-1690)
		담당자	사무관	이준협	(02-2100-1696)
	금융위원회 디지털금융총괄과	책임자	과 장	정선인	(02-2100-2530)
		담당자	사무관	김창배	(02-2100-2534)
	재정경제부 금융세제과	책임자	과 장	박은영	(044-215-4230)
		담당자	사무관	이재우	(044-215-4233)
	서민금융진흥원 미래자산형성지원부	책임자	부 장	배성윤	(02-2128-8216)
		담당자	팀 장	유인태	(02-2128-8176)
	주택금융공사 정책금융처	책임자	처 장	김성수	(051-663-8271)
		담당자	팀 장	강현구	(051-663-8272)
	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처	책임자	처 장	손정주	(051-663-8401)
		담당자	팀 장	이승희	(051-663-8431)
	한국핀테크지원센터 경영기획부	책임자	부 장	홍석훈	(02-6375-1508)
		담당자	과 장	이승하	(02-6375-1527)

우리아이자립펀드 신규

◇ 부모가 자녀 명의로 펀드에 가입하고,
부모와 정부가 함께 납입하며
자녀가 청년이 되는 시점까지 장기간 적립·투자

□ **[배경]** 청년들의 첫 사회 진입 및 자립을 위한 경제적 기반

(교육·주거·창업비 등)을 마련하는 것은 부모와 자녀세대 모두의 과제

- 기존 아동지원 프로그램과 차별화된, ‘중장기’에 걸쳐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보완적 정책 마련에 대한 필요성 제기

➔ 아동이 청년이 되었을 때 학업·독립·창업 등을 위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중장기 금융투자상품(펀드) 출시

* (관련 국정과제) 82. 생애주기별 금융 자산·소득 형성

□ **[개요]** 부모가 자녀 명의로 펀드에 가입하고, 부모와 정부가 함께 적립하여 중장기로 투자·운용하는 **우리아이자립펀드 신설**

- (사업구조) 정부가 출생부터 만 18 세까지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최대 年 100 만원 또는 120 만원)을 아동 명의 펀드에 지원

* 年 200 만원씩 19 년간 적립·투자, 수익률 6% 가정 → 만기시 적립금 약 7,000 만원

- (재정지원) 저소득층(중위소득 50%↓)은 年 120 만원 정액 지원, 중위 50~150%는 부모 납입액에 비례하여 최대 年 100 만원 매칭 지원

가구 소득	중위 50% ↓	중위 50~100%	중위 100~150%	중위 150% ↑
지원·혜택	정액 120만원	납입 50만원-매칭 100만원 (1:2 매칭)	납입 100만원-매칭 100만원 (1:1 매칭)	X

청년기회자금^{신규}

□ **(배경)** 미취업 청년(대학(원) 재학생·휴학생 제외)의 취업준비 기간 중 자금으로 해소를 위한 **신규 상품 출시**

□ **(지원대상)**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연소득 3,500만원 이하 미취업자*

* 대학(원) 재학·휴학생 제외

□ **(상품조건^{잠정})** 연 4%^{일반 기준}(1%p 보증료율 별도) 금리에 총 2,000만원 한도로 대출

※ 상세 상품조건은 향후 상품 구체화 과정에서 일부 변동 가능

○ 일반 미취업자는 연 4%(1%p 보증료율 별도)에 자금을 공급하고, 사회적 배려대상자* 및 고졸 미취업 청년에 대해서는 1.6%p 이차보전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활근로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록 장애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잠정, 햇살론유스 기준)

<대상별 금리수준(안)>

일반	4% (1%p 보증료율 별도)
사회적배려대상자	1.9% (1.6%p 이차보전, 0.5%p 은행 자체 금리 인하, 0.1%p 보증료율 별도)
고졸 미취업청년	2.4% (1.6%p 이차보전, 0.1%p 보증료율 별도)

○ 생애 2,000만원, 1회 500만원, 연간 750만원(6개월 간격) 한도로 대출

○ 취업준비 청년의 경우 거치기간 중 이자면제*(별도 신청·증빙)

<이자면제 프로그램 운영(안)>

대상	○ 취업 준비 중인 청년
운영 방식	○ (이자면제 방식) 취업준비의 거치기간 중 이자 납입 면제를 적용하고 면제기간 중 정부가 금융기관에 이자를 대납 ○ (취업준비 증빙 방식) 실업급여 등 既운영 제도의 증빙 수준에 준하여 운영

청년 금융혁신 창업·일자리 확대 지원사업^{신규}

- **(배경)** 청년층의 취업 및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AI를 활용한 핀테크 분야의 사업화를 지원하고 AI 전문인력을 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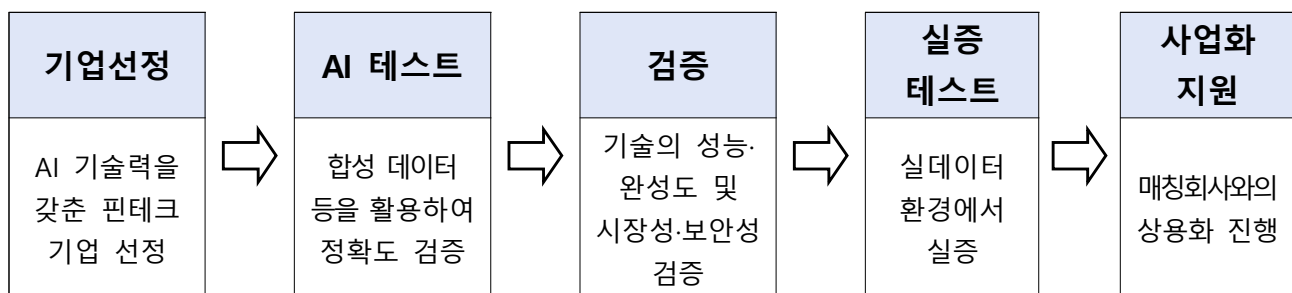
➔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핀테크 혁신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을 조성

- **(개요)** 청년 핀테크 기업의 ①혁신 AI 기술 실증·매칭 지원(30억원)과 ②AI 맞춤형 인재 양성(20억원)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① **(AI 실증·매칭^{30억원})** 혁신적인 AI 기술을 보유한 청년 핀테크 기업에 테스트환경 제공, 데이터 기반 검증 등을 지원하여 사업화를 촉진

- 금융혁신성 및 시장 파급효과가 높은 청년 핀테크 기업을 발굴하여 기업 보유 AI 모델의 정확도·보안성·시장성 등을 정밀 검증
- 검증을 통과한 기업에 대해서는 금융회사와 연계하여 데이터를 활용한 실증 및 사업화를 지원

< 사업화 지원 단계 >



② **(청년인재 육성^{20억원})** 실무 프로젝트, 인턴십, 자격취득 지원 등 다각적인 교육 지원을 통해 현장에서 즉시 활용가능한 실무형 전문 인재 양성

- 핀테크기업, 금융회사, 공공기관 등 기업 수요를 반영한 특화 교육 과정(1,000여명) 및 실무 프로젝트 중심 훈련 운영
- 교육 수료생을 대상으로 인턴십 연계(100여명), 자격취득을 위한 바우처 지급(600여명) 등을 지원하여 즉시 전력화 가능한 전문인력 양성

청년미래적금^{개편}

① 현행-개선안('27년부터 적용) 비교

구분		현행	개선
일반형*	기여금	6%	좌동
	요건	총급여 6,000만원(종합소득 4,800만원) 이하	개인·가구소득 요건 폐지 ⇒ 모든 청년 가입가능
우대형	기여금	12%	15% 또는 25%(지방 중소기업 재직자)
	요건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 총급여 6,000만원(종합소득 4,800만원) 이하	좌동
		중소기업 재직자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좌동
		소상공인 연매출 1억원 이하	좌동

* 현재 총급여 6천만원(종합소득 4,800만원) 초과 ~ 7,500만원(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는 비과세 혜택만 부여 중

② 청년미래적금 최대 만기수령금

구분		만기금
현재 (일반형 6%·우대형 12%)	7% 가정시	· 일반형 2,110만원 : 1,800 ^{원금} + 108 ^{기여금} + 202 ^{이자} (단리 13.2% 적금상품 수준*)
		· 우대형 2,227만원 : 1,800 ^{원금} + 216 ^{기여금} + 211 ^{이자} (단리 18.2% 적금상품 수준)
	8% 가정시	· 일반형 2,138만원 : 1,800 ^{원금} + 108 ^{기여금} + 230 ^{이자} (단리 14.4% 적금상품 수준)
		· 우대형 2,255만원 : 1,800 ^{원금} + 216 ^{기여금} + 239 ^{이자} (단리 19.4% 적금상품 수준)
우대형 변경안 (일반형 6%·우대형 15%·지방우대 25%)	7% 가정시	· 일반형 2,110만원 : 1,800 ^{원금} + 108 ^{기여금} + 202 ^{이자} (단리 13.2% 적금상품 수준)
		· 우대형 2,285만원 : 1,800 ^{원금} + 270 ^{기여금} + 215 ^{이자} (단리 20.7% 적금상품 수준)
		· 중기우대형 2,479만원 : 1,800 ^{원금} + 450 ^{기여금} + 229 ^{이자} (단리 28.9% 적금상품 수준)
	8% 가정시	· 일반형 2,138만원 : 1,800 ^{원금} + 108 ^{기여금} + 230 ^{이자} (단리 14.4% 적금상품 수준)
		· 우대형 2,313만원 : 1,800 ^{원금} + 270 ^{기여금} + 243 ^{이자} (단리 21.9% 적금상품 수준)
		· 중기우대형 2,507만원 : 1,800 ^{원금} + 450 ^{기여금} + 257 ^{이자} (단리 30.1% 적금상품 수준)

* 기여금 + 이자 + 이자소득세 면제 효과 감안

청년 주거 사다리 지원 신규

※ 주택금융공사 상품 출시

① (자 가) “월세로 집 사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 신규 출시 (年 3조원, 2년 한시 공급)

- 1인 가구, 사회초년생 등의 주거수요를 고려한 “징검다리” 자가 마련* 지원

* 제도 취지, 평균 주택가격 등을 고려하여 4억원 이하 非아파트 대상으로 우선 출시 (아파트 구입을 희망하는 청년 등은 현재와 같이 일반 보금자리론을 통해 매수 가능)

※ 지원 대상에 ‘오피스텔’을 포함하기 위한 주택금융공사법 개정 추진 (‘26.下)

(현행주택법상 주택만 보금자리론 지원 가능 → 개선오피스텔(준주택)도 지원대상에 포함)

- 월세 수준의 원리금 상환*(우대금리 적용), 생애최초 LTV 우대 혜택 (수도권·규제지역 70%, 그 외 80%) 유지 등 인센티브 제공

* (예) 월 원리금 상환액 85만원 (비APT 평균 월세 80만원) (2억원 대출, 30년 만기, 3.0% 이자 가정)

[청년미래보금자리론 상품안(案)]

* 세부사항 추후 확정

구 분	일반 보금자리론	청년미래 보금자리론(案)
공급대상	민법상 성년	생애최초 주택구입 청년(만39세 이하)
대상주택	6억원 이하 주택	4억원 이하, 非아파트(85㎡이하)
LTV	아파트 70%, 기타주택 65% (규제지역 10%p 차감) (생애최초 80%(수도권·규제지역 70%))	최대 80%
소득요건	7천만원 이하	7천만원 이하(신혼부부는 부부 중 1인 기준)
금리	4.90% ~ 5.20%	우대금리(기본우대+지방·저소득·신생아 추가우대)
생애최초	이용 시 생애최초 LTV 우대혜택 소멸	이용 시에도 생애최초 LTV 우대혜택* 유지 (수도권·규제지역 70%, 그 외 80%)

② (반전세) 청년 전세+월세* 대출 결합보증 상품 신규 출시, 지방·저소득 청년은 이차보전 (年 4.5조원, 2년 한시 공급)

* [보증대상] 기존전세보증, 월세보증 中 택1 → 개선전세+월세 대출 모두 보증
[월세대출] 기존매월 자동 대출실행 → 개선마이너스통장 방식(필요시에만 활용)

[청년 전월세결합보증 상품안(案)]

* 세부사항 추후 확정

구 분	일반 전세대출보증	청년 전월세결합보증
대상자	무주택자, 1주택자(규제대상 APT 제외)	만 39세 이하 무주택청년
소득요건	-	7천만원 이하(신혼부부는 부부 중 1인 기준)
대출한도	임차보증금 80%, 4억원	임차보증금 90%*, 2억원** * 월세대출도 대출한도에 포함 ** 신혼·유자녀는 3억원
보증비율	90% (수도권·규제지역 80%)	100%
이차보전	-	이차보전(지방·저소득 청년)